

활동(motion)·소비(consumption)·창조(creation) 동사의 사건 구조에 대한 연구:*

생성 어휘부 이론을 중심으로

김 윤 신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 서론

Vendler(1967)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온 동사의 상에 대한 연구에서 동작 동사(activity verbs)¹⁾와 완성 동사(accomplishment verbs)의 구분에 대한 논

* 이 논문은 2004년 한국어정보학회 여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어설픈 줄고를 자세히 읽고 꼼꼼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논평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이다. 또한 한국어정보학회의 발표회에서 논평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도 역시 감사드린다. 심사위원들과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은 논문의 수정에 매우 유용하였다. 그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하였으나 혹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필자 본인의 책임임을 밝혀 둔다.

주 제 어: 활동·소비·창조 동사, 동작 동사, 완성 동사, 점증적 대상, 계량화, 어휘적 폐쇄, 생성 어휘부 이론, 사건 구조, 타동성, 사동, 영향 입음성, 사건 유지 구조, 대립 구조

motion/consumption/creation verbs, activity, accomplishment, incremental theme, quantization, lexical closure, Generative Lexicon Theory, event structure, transitivity, causation, affectedness, event persistence structure, opposition structure

의는 항상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로 여겨져 왔으며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Smith(1999)와 같은 상적 부류(aspectual class)에 대한 연구에서는 동작 동사와 완성 동사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를 사건구조의 동질성(homogeneity)과 이질성(heterogeneity)에 두고 있다.

특히 타동사 구문의 상적 의미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더더욱 극명하다. 한국어의 경우에는 ‘수레를 밀다’의 ‘밀다’와 같이 동작 동사만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 ‘먹다’와 같이 논항의 특성에 따라서 사건의 종결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짓다’와 같이 분명한 완성 동사로만 나타나는 타동사가 있다. ‘먹다’와 같이 논항의 특성에 따라 구문의 상적 부류가 달라지는 동사의 경우는 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한다. 따라서 타동사에 대해서 완성 동사와 동작 동사의 구분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동사 자체의 사건 구조를 논의하기 보다는 동사구나 문장 전체의 사건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동사 자체의 사건 구조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동사의 상적 부류를 처음 제시했던 Vendler(1967)의 연구도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 그러나 실제로 동사 자체가 갖는 기본적인 사건 구조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러한 동사와 결합하는 논항의 특성에 따라 동사구가 다양한 상적 의미를 나타내며 이는 동사구의 상적 의미는 동사 자체의 사건 구조와 논항의 어휘 의미 구조를 근거로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이러한 동작 동사와 완성 동사가 취하는 대상 논항에 대한 많은 이론이 제기되었고 그 가운데 Krifka(1992, 1998)의 점증적 대상(incremental theme)과 계량화(quantization)에 대한 견해가 가장 주목을 받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건의 진행은 대상 논항에 반영되는 변화의 정도에 반영되며 계량화

-
- 1) Vendler(1967)의 네 가지 상적 부류의 명칭에 대하여 합의된 용어가 실제로 없다고 감히 필자는 생각하는 바이다. 이에 ‘activity’의 사전적인 의미는 활동, 움직임을 나타낸다. ‘행위 동사’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다른 부류의 동사인 완성과 달성 동사도 함께 포괄할 수 있는 용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필자는 과정만으로 이루어진 사건을 나타내는 동사는 ‘동작 동사’로 부르기로 한다.

된 대상 논항은 사건의 완결점(telic point)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점증적이고 계량화된 대상 논항을 취하는 동사는 완결점을 갖는 완성 동사이며 그러한 논항을 갖지 않는 동사는 동작 동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Tenny(1994)와 Rothstein(2004) 등에서도 Krifka(1992, 1998)의 점증적 대상과 계량화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으며,²⁾ Krifka(1998)도 이와 같은 점증성과 자신의 견해에 오류를 인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두드러진 문제점은 논항의 특징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으나 동사의 사건 구조 자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논란이 되는 동사의 부류들 가운데 ‘push/밀다’, ‘eat/먹다’, ‘build/짓다’ 세 종류의 동사를 중심으로 기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어휘의 차원에서 생성 어휘부 이론의 사건 구조(event structure)와 사건 유지 구조(event persistence structure, EPS), 그리고, 타동성(transitivity) 개념을 근거로 동작 동사나 완성 동사로 해석되는 타동사의 상적 부류를 재정립하고자 한다. 즉, 사건 구조 자체를 어휘상의 구체적인 표상으로 삼는 것이다. 또한 한국어와 영어의 대표적인 예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어휘 의미 구조의 구체적인 표상을 통해서 동작 동사와 완성 동사의 구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먼저 타동사인 동작 동사와 완성 동사의 분포를 관찰할 것이다. 그 다음, ‘밀다’와 같은 전형적인 활동 동사(motion verb),³⁾ ‘먹다’와 같은 소비 동사(consumption verb), ‘짓다’와 같은 창조 동사(creation verb)⁴⁾의 논항이 갖는 특

2) 이 부분에 대해서 3절에서 자세히 논의할 예정이다.

3) 이 논문에 대한 논쟁 가운데 가장 많고 또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용어의 사용에 대한 것이다. 특히 영어 용어인 ‘motion’에 대한 적절한 용어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이동’이란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동’은 ‘movement’를 옮기는 데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이 논문에서 주로 다루는 동사는 ‘밀다’, ‘당기다’와 같은 행동주의 움직임이나 동작이 위주가 되는 동사들이므로 조금은 큰 의미를 전달하는 용어이나 부득이하게 ‘활동’이라는 한국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용어를 찾는 것에 대한 많은 의견 제시와 논의를 기대한다.

성과 사건 구조의 연관성을 Krifka(1992, 1998)와 Tenny(1994), Rothstein(2004)의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생성 어휘부 이론(Generative Lexicon Theory)의 어휘적 폐쇄(lexical closure)의 관점에서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역시 생성 어휘부 이론에서 최근에 제시하는 사건 유지 구조와 하위 사건 사이의 대립 구조(opposition structure)에 근거한 사건 유지 구조와 관련하여 앞에서 언급한 세 부류의 동사들이 서로 다른 사건 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논증하고자 한다.

2. 논항의 분포와 상적 해석의 차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작 동사와 완성 동사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대상 논항의 특성이다. 동작 동사가 행동주(agent) 논항만을 갖는 자동사인 비능격 동사(unergative verb)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논항의 특징에 대한 논의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 모르나 대상 논항을 갖는 타동사의 경우에는 문장의 상적 의미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상적 부류로 범주화하기가 어렵다. 또한 타동사 구문에 있어서 논항의 분포는 타동사의 상적 부류를 결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타동사의 사건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논항의 분포를 살펴보는 것은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완성 동사의 완결성(telicity)은 그 직접 목적어의 자질에 의해 결정되며 반면 동작 동사의 완결성은 직접 목적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부사어, 방향 부사어, 또는 경로 부사어 등에 의해 제한된다. Dowty(1979)

-
- 4) 한 심사 위원은 '창조 동사'라는 용어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이 용어에 대하여 반박하는 학자들이 많고 자연스러운 한국어 용어가 아닐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제조 동사'나 '산출 동사'와 같은 다른 용어의 사용이 있음도 이미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creation'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존재하게 한다는 의미가 강하므로 그러한 의미에 초점을 두어 '창조 동사'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물론 이에 대한 논쟁을 통해 더 나은 용어의 사용을 기대한다.

등이 언급했듯이 'in a year, for a year, at one o'clock' 과 같은 시간 부사어는 상적 부류를 구별하는 고전적인 기준이다. 'in a year' 와 같은 시간틀 부사어(frame adverbial)는 달성 동사와 함께 나타나는 반면 'for a year' 와 같은 지속 부사어(durative adverbial)는 동작 동사와 완성 동사를 수식할 수 있다. 그리고 'at one o'clock' 과 같은 시점 부사어(point adverbial)는 그 부사어를 사건의 정점(culminating point)이 있는 달성 동사나 완성 동사와 함께 나타난다. 또한 경로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어는 사건의 종착점을 추론하게 하므로 완결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들을 살펴보면 시간 부사어의 사용은 동사 자체의 사건 구조 보다는 동사구의 사건 구조에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 (1) a. Mary built the house *for a year/in a year.
b. Mary built houses for a year/*in a year.
- (2) a. Mary ate the apple *for an hour/in an hour.
b. Mary ate apples for an hour/*in an hour.
- (3) a. John pushed the cart for an hour/*in an hour.
b. John pushed carts for an hour/*in an hour.

Rothstein(2004)은 (1)과 (2)에서 창조 동사인 'build' 와 소비 동사인 'eat' 를 포함하는 문장에서는 직접 목적어인 대상 논항의 특징에 의해서 문장이 나타내는 사건의 완결성이 결정되는 반면에 활동 동사인 'push' 를 포함하는 (3)의 완결성은 동사의 직접 목적어인 논항에 의존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1a)와 (2a)는 한정적인 대상을 목적으로 취할 경우에는 완결된 사건을 나타내는 완성 사건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1b)와 (2b)에서와 같이 비한정적인 대상을 목적으로 취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동작 사건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1)과 (2)의 예들을 살펴보면 문장의 상적인 의미 해석에는 단순히 동사의 사건 구조뿐만 아니라 동사와 결합하는 논항의 특징이 우선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3)의 경우에는 논항의 특징에 동사구 전체의 상적

해석이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1)과 (2)에 속하는 부류의 동사들과 (3)에 속하는 부류의 동사들 사이에는 기본적인 어휘 의미 구조, 더 자세히 말하자면 사건 구조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한국어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타동사 구문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난다. 다음 (4)-(6)의 예들은 그 논항의 실현과 같은 표면적인 형태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상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⁵⁾

- (4) a. 영희는 수레를 밀었다.
- b. 영희는 수레 하나를 밀었다.
- (5) a. 철수는 사과를 먹었다.
- b. 철수는 사과 하나를 먹었다.
- (6) a. 동호는 집을 지었다.
- b. 동호는 집을 한 채 지었다.

(4)의 ‘밀다’는 비교적 명백하게 동작 동사의 행태를 보이는 반면 (5)의 ‘먹다’는 동사가 취하는 대상 논항의 특성에 따라 동작 동사나 완성 동사의 특징을 모두 보이고 있다. 그리고 (6)의 ‘짓다’는 분명한 완성 동사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4b)와 같이 대상을 계량화할지라도 ‘밀다’와 같은 동작 동사는 그 상적 변이가 일어나지 않지만 (5b)는 계량화할 경우 분명히 완성 동사의 특징을 보인다. (5a)는 미완결 사건을 나타내는 동작동사의 특징을 보인다. 특히, ‘먹다’와 같은 동사는 늘 동작동사와 완성 동사의 경계에서 맥락에 따라서 그 상적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⁶⁾

5) 한국어 동사의 완결성이 대상 논항의 계량화와 관계가 있음을 밝힌 논의에는 C. Lee(1989) 등이 있다.

6) 한 심사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건의 상적 유형을 결정하는 맥락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과제인 것은 분명하다. 점중성이나 계량화와 같은 대상 논항의 특성만이 기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는 어휘 의미론의 연구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하느냐의 문제와 관련이

창조 동사와 소비 동사가 서로 다른 상적 해석을 갖는 것에 대한 증거는 다음과 같은 미완료 역설(imperfective paradox)에서 찾아볼 수 있다. Dowty(1979)는 미완료 역설을 이용해서 동작 동사와 완성 동사를 구분한다. 동작 동사는 진행형인 미완료상이 완료상을 함의하는 미완료 역설이 성립하는 반면 완성 동사는 이러한 미완료 역설이 성립하지 않는다.

- (7) a. Mary is running. → Mary has run.
- b. John is building a house. → John has built a house.
- (8) a. 영희가 뛰고 있다. → 영희가 뛰었다.
- b. 철수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 → 철수가 그림을 그렸다.

그런데 이것은 사건의 동질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식이다. 동작 동사의 경우에는 동질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의 한 시점에서 그 사건이 진행 중이면 그 사건은 이미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완성 동사의 경우에는 과정사건과 결과 상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사건의 한 시점에서 그 과정 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결과 상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즉 그 사건 전체가 다 완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를 이 논문에서 논의하고 있는 활동 동사, 소비 동사, 그리고 창조 동사에 적용시켜보면 다음과 같다.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관심은 동사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논항의 범위 내에서 그 동사의 상적 유형이 결정되는 양상을 탐구하고자 한다. 만약 그 외의 화용적인 맥락을 모두 고려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어휘의 사용이 화자와 청자의 암묵적인 동의만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용될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장소 부사어의 사용이나 그 외의 부사어의 사용에 대한 언급은 가능한 피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연구 방식에 대한 비판은 당연한 것이나 필자의 연구 방향은 일단 필수적인 논항을 중심으로 동사의 상적 특성을 분석하고 그 범위를 부사어등과 같이 보다 확대된 영역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9) a. 영희가 수레를 밀고 있다. → 영희가 수레를 밀었다. (항상)
 b. 철수가 사과를 먹고 있다. ⇨ 철수가 사과를 먹었다. (때때로)
 c. 동호가 집을 짓고 있다. ⇨ 동호가 집을 지었다. (불가능)

이 예들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세 유형의 동사들은 이 미완료 역설에 있어서 민감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활동 동사인 (9a)의 ‘밀다’는 미완료 역설이 성립하는 반면에 소비 동사인 (9b)의 ‘먹다’는 맥락에 따라서 미완료 역설이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창조 동사인 (9c)의 ‘짓다’는 전형적인 완성 동사로 미완료 역설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동사와 완성 동사의 구분이 모호한 이 세 부류의 동사들에는 상적 해석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3. 논항의 어휘 의미적 특성

3절에서는 논항의 어휘 의미적 특성을 점증성(incrementality)와 계량화(quantization), 그리고 어휘적 폐쇄(lexical closure)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점증성과 계량화는 술어가 나타내는 사건의 완결성에 영향을 주는 논항의 특징에 대한 주요 논의에서 논항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 절에서는 이 두 가지 특징을 검토하고 비판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생성 어휘부 이론에서 제시하는 어휘적 폐쇄라고 하는 새로운 논항의 특징을 제시하고자 한다.⁷⁾

7) 이외에도 고려해야 할 논항의 특징이 있다. 특히, 계량화와 관련하여 Krifka(1992, 1998)와 Rothstein(2004)이 제시한 누적성(cumulativity)에 대한 논의는 더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의 논의 진행 방향상 깊은 논의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필자의 판단에서 이는 이후의 연구로 넘기기로 한다.

3.1. 점증성(Incrementality)과 계량화(Quantization)

Krifka(1992, 1998)는 술어의 완결성은 점증성과 계량화의 두 가지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10) a. Mary ate the sandwich.
- b. Jane mowed the lawn.
- c. Dafna built a house.

Dowty(1991)가 밝힌 것과 같이(10a)에서는 Mary가 샌드위치의 상태가 변화는 것을 봄으로써 Mary가 샌드위치를 먹는 과정을 알 수 있으며(10b)에서는 잔디의 상태 변화, 그리고(10c)에서는 집의 완성도가 곧 사건의 과정을 나타낸다.

Krifka(1992, 1998)에 따르면 점증적인 술어는 대상의 외연으로부터 대상이 참여하는 사건의 정도로까지 대응하는 동형 관계(homomorphism)를 나타내며 직접 목적어의 점증성 자체가 동사구 전체로 삼투되어 동사구의 점증성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점증적인 완성 동사는 완결 상태로 나아가는 사건이므로 완결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비점증적인 동작 동사는 직접 목적어의 계량화 여부가 동사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계량화 여부에 따라서는 'run' 이나 'push a cart' 와 같이 비계량적이고 누적적인 동작 동사는 미완결의 사건을 나타내며 'build a house' 와 같이 계량화된 술어는 완결된 사건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Krifka(1992, 1998)는 점증성은 완결성의 필요조건이고 점증성과 계량화 모두는 완결성의 충분조건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점증성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완결성을 완전히 보장하지는 않는다.

앞의 (4)-(5)의 한국어의 예에서 보면 (4)의 활동 동사인 '밀다' 는 대상 논항 자체가 점증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량화한다 하여도 사건의 완결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와 달리, (5)의 소비 동사인 '먹다' 는 대상 논항이 점증적인 변화를 반영하나 계량화되지 않은 (5a)의 경우에는

완결된 사건을 보장하지 못한다. 반면, (6)의 창조 동사인 ‘짓다’는 대상 자체가 점증적인 변화를 반영하지는 않으므로 점증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대상 논항은 결과적으로 도입되는 결과물 자체를 나타내며 이러한 사실은 곧 결과 상태의 분명한 표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 보장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이와 같은 사건의 완결은 함축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증성의 불완전성에 대해서는 Krifka(1998)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peel an apple’과 같이 동사의 전체 대상 변화의 정도가 동사의 사건 진행의 정도를 반영하지 않는 동사들이 있다. 사과를 껍질을 벗겨 내는 일은 사과 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사과와 부분의 변화이다. 즉 사과 껍질을 벗겨 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상 논항으로 직접 나타난 ‘사과’에는 실제로의 영향은 없는 것이다. Tenny(1994)도 Krifka(1992)의 체계가 사건의 구획(measuring-out)을 표상할 수 있는 등급 변수, 즉 대상의 어떤 속성에 대한 참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점증성을 비판하고 있다. 즉, 사건의 진행에 따른 대상의 상태에 대한 미묘한 변화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build a house’와 같이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가 대상인 논항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짓다’와 같은 창조 동사의 문제가 바로 이러한 것이다.

이에 Rothstein(2004)은 세 가지 문제점을 덧붙였다. 첫째, ‘wiped the table’과 같이 결합하는 시간 부사어에 따라서 완성 동사나 동작 동사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⁸⁾ 둘째, ‘repair the computer.’와 같이 완결된 동사구가 핵이지만 대상 논항의 변화 정도에 따라서 사건의 진행을 알아 볼 수 없는 동사들이 있다. 셋째, ‘John sang babies asleep.’과 같이 파생 결과 구문에서 대상 논항의 정도가 어떤 의미에서 관련 사건의 정도나 완결점을 나타내는가에 대하여 불분명한 동사들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대상의 점증적인 변화나 계량화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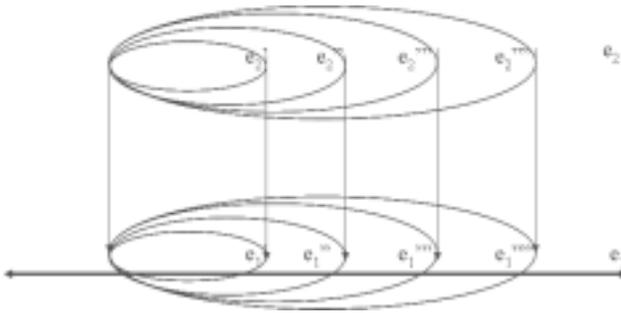
8) Rothstein(2004)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a. wipe glass for several hours/*in several hours
- b. wipe the table in five minutes/in five minutes

통해서 완성 동사와 동작 동사를 구별하는 기준을 혼란스럽게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Rothstein(2004)은 대상 논항의 상태 변화 정도가 사건의 정도를 결정한다기 보다는 대상 논항의 변화 정도가 사건의 진행 정도를 결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즉 단순히 논항의 특성만으로 점증성이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1)



Rothstein(2004: 109)

Rothstein(2004)은 완성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은 동작(activities) 사건과 그와 함께 병행되는 점증적인 과정(incremental process)인 전이 사건(transition event), 그리고 마지막 완성 사건이 완결된 마지막 결과 상태로 구성된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점증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건 구조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완성 동사의 사건 구조가 기본적으로 둘 이상의 하위 사건으로 이루어진 복합 사건 구조임을 밝혀 주는 것이다.⁹⁾ 이는 점증성을 대상 논항 자체의 특징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대상 논항과 관련된 사건의 진행 상황에서 파악하려는 점에서 Krifka(1992, 1998)의 점증성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완성 동사가 취하는 대상 논항의 점증성이 동사구의 완결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¹⁰⁾

9) 사건 구조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4절에서 하기로 한다.

10) 한 심사 위원이 완성 동사가 점증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그런데 앞에서 제기한 점증성과 계량화에 대한 문제만으로는 ‘먹다’와 같은 소비 동사와 ‘짓다’와 같은 창조 동사의 분포와 의미 차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또한 대상 논항의 변화 정도가 전체 사건의 변화 정도를 반영한다는 또 다른 설명도 창조 동사의 논항에는 적용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집을 짓다’가 완결된 상태의 집이 있을 경우에 참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논쟁이 이와 같은 동사의 상적 의미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큰 쟁점이 된다. 형식 의미론의 관점에서는 이와 같은 시상에 대한 논쟁을 Landman(1992)과 같이 가능 세계와 같은 양상 논리적인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이 있으나 이는 ‘화자’와 ‘청자’라는 주관적이고 변화무쌍한 맥락에 의존하고 있어 보다 객관적인 설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논항의 실현의 차원에서 활동·소비·창조 동사의 완결성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생성 어휘부의 논항 폐쇄와 관련된 어 동사의 완결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2. 어휘적 폐쇄(Lexical Closure)와 완결성

Pustejovsky(2000a)는 다음과 같은 동사의 교체 현상을 논항과 그 논항의 통사적 실현을 막는 기저의 의미 표현 사이의 관계인 어휘 가리기(lexical shadowing)¹¹⁾으로 설명하고 있다.

- (12) a. Mary buttered her bread.
 b. Mary buttered her bread with an expensive butter from Wisconsin.

이 부분에서 점증성을 언급하였다는 논평을 하셨다. 지금 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논항 자체의 점증성과 논항의 상태 변화를 사건으로 파악하고 그것의 점증성을 따지는 것은 다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는 바이다.

11) 원래의 원고에서는 ‘어휘 차단’으로 번역하였으나 이정민 선생님의 지적에 따라 ‘차단’이라는 한자어의 단호한 의미를 피하고자 ‘가리기’라는 우리말 용어로 바꾸어 사용한다.

- c. *Mary buttered her bread with butter.
- (13) a. John built a house out of bricks.
b. John built a brick house out of limestone bricks.
- (14) a. Mary risked death to save her son.
b. Mary risked her life to save her son.
- (15) a. John gave a talk to the academy today.
b. John gave a talk today.
c. *John gave a book today.

(12)는 동사 'butter' 가 그림자 논항(shadow argument)인 'butter' 의 실현을 제한하는 경우며, (13)은 동사 'build' 가 당연 논항(default argument)인 'bricks' 가 부가어로만 실현되도록 하는 양상을 보여준다.¹²⁾ 또한 (14)의 'risk' 는 'death' 와 'life' 와 같이 모순 개념의 논항이 상보적 분포를 보이도록 가리고 있다. 마지막 (15)의 'give a lecture' 의 경우에는 'give' 자체가 요구하는 논항들을 모두 실현시키기도 하지만 (15b)와 같이 착점(goal) 논항을 생략시키는 경우도 허용

12) Pustejovsky(1995)의 생성 어휘부 이론에서는 논항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참논항(true argument)은 논리적으로도 통사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논항이며, 가장 일반적인 개념의 논항이다. 둘째, 당연 논항(default argument)은 논리적으로는 필요하지만 통사적으로는 수의적인 논항이다. 통사론에서 일반적으로 부가어로 취급되어 온 것이다. 예를 들어, John built a house out of bricks. 에서와 같은 문장의 밑줄 친 재료를 나타내는 논항이 바로 당연 논항이다. 셋째, 그림자 논항(shadow argument)은 술어의 하위개념인 논항으로 논리적으로도 통사적으로도 수의적인 논항이며 반드시 특정한 수식표현을 동반해야만 통사적으로 실현 가능하다. 그림자 논항은 문장의 층위보다 더 상위의 조건인 담화나 맥락의 요소로 수의적으로 표현되는 통사론적 부가어의 성격이 강하다. 그 예는 위에 제시된 것과 같이 Mary buttered her bread with an expensive butter from Wisconsin. 에서의 밑줄 친 with 구절이다. 마지막으로 부가어(adjunct)는 장소나 시간 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논리적 해석을 수식하고 상황적 해석의 일부이지만 특정 어휘항목의 의미표상에 고정된 것이 아닌 변수를 말한다. 이것은 가장 일반적인 부가어이다.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5c)와 같이 'a lecture' 가 아닌 'a book' 과 결합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논항 가리기' 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의 '어휘 가리기' 를 Pustejovsky(2000a: 70)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1. 논항 가리기(ARGUMENT SHADOWING): 논항의 표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려진다.
 - i. 동사의 의미에 의해 직접 가려지는 경우
예) 동족(목적)어 구성(cognate construction)¹³⁾
 - ii. 구절의 의미에 의해서 가려지는 경우
예) build
2. 상보적 가리기(COMPLEMENTARY SHADOWING): 한 논항의 표현이 상보적인 방식으로 다른 표현을 가린다.
예) risk
3. 공동 합성적 가리기(CO-COMPOSITIONAL SHADOWING): 어떤 논항의 표현이 동사와의 상호작용의 양상에 따라서 수의성을 갖는다.
예) give a talk, give a lecture

이러한 세 가지 유형 가운데 현재 동작 동사와 완성 동사의 논항 실현은 첫 번째 유형인 '논항 가리기' 의 경우에 해당한다. 각각의 동사의 논항 실현을 살펴보도록 하자.

- (16) a. John pushed the cart.
b. John pushed the cart to the door.
c. *John pushed to the door.

13)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어의 경우는 다르다는 한 심사 위원의 지적이 있었다. 한국어의 '춤을 추다' 나 '꿈을 꾸다' 등은 수식어 없이 실현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매우 의미가 있는 지적이나 현재 이 논문의 논의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일단은 다음의 논의로 미루기로 한다.

- (17) a. Mary ate an apple.
 b. Mary ate.
 c. Mary ate something.
- (18) a. Mary built the house.
 b. Mary built the house out of bricks.
 c. *Mary built out of bricks.
- (19) a. 영희는 수레를 밀었다.
 b. 영희는 수레를 문까지 밀었다.
 c. *영희는 문까지 밀었다.
- (20) a. 철수는 사과를 먹었다.
 b. 철수는 먹었다.
 c. 철수는 뭔가를 먹었다.
- (21) a. 동호는 집을 지었다.
 b. 동호는 벽돌로 집을 지었다.
 c. *동호는 벽돌로 지었다.

(16)의 'push'와 (19)의 '밀다'는 타동의 동작 동사인 활동 동사로 대상물의 이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동사들은 완결된 사건을 나타내기 위해서 (16b)와 (19b)와 같이 완결점을 표시하는 착점 부가어를 첨가하는 방법이 있을 뿐이다. 이때, 대상 논항에 나타나는 변화가 점증적이지 않고 계량화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부가어의 생략은 허용되지만 필수적인 논항의 생략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비교할 만한 예가 (18)과 (21)의 창조 동사이다. 이 동사들도 역시 점증적인 대상 논항을 취하지는 않지만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논항을 대상으로 취하고 있으며 행위의 영향을 직접 입는 재료 논항을 당연 논항으로 취하고 있다. 이 때 당연 논항은 (18b)와 (21b)에서와 같이 사격 논항으로 실현되고 있다. 이와 달리 (17)과 (20)은 소비 동사의 예로 (17b)와 (20b)와 같이 맥락에 따라서 필수 논항의 생략이 허용된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17c)나 (20c)와 같은 의미를 갖게 되므로 무엇인가 대상 논항에 특별한 자질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예들을 살펴보면 논항의 생략에 무엇인가 일정한 경향

이 있으며 이것이 바로 ‘논항 가리기’ 라고 할 수 있다.

Pustejovsky(2000a: 75)는 이와 같은 ‘논항 가리기’ 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실현된다고 주장한다.

1. 어휘적 폐쇄(LEXICAL CLOSURE): 논항이 술어에 대하여 사격 구절로 서만 실현된다.
2. 기능적 폐쇄(FUNCTIONAL CLOSURE): 논항이 전형적으로 직접 논항으로 실현된다.

‘어휘적 폐쇄’가 일어나는 술어들은 주로 당연 논항이나 그림자 논항을 갖는 경우로 논항 교체 현상(argument alternation)과 관련이 된다. 반면 ‘기능적 폐쇄’는 가려지는 논항이 참논항이며 폐쇄되는 논항은 변수에 대한 표시로 취급된다.

위의 예 (16)–(21)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단순한 활동 동사의 경우에는 논항 가리기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수적인 논항의 생략이 아닌 수의적인 부가어 성분의 생략이 일어날 뿐이다. 따라서 수의적인 생략이 일어나는 활동 동사의 경우에는 논항의 가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창조 동사의 경우에는 재료 논항은 어휘 폐쇄를 통해 가려진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특질 구조의 의미에 나타난다.

- (22) a. $push \Rightarrow \lambda y \lambda x \lambda e [push(e,x,y)]$
 b. $build \Rightarrow \lambda y \lambda x \lambda e \exists z. material[build(e,x,y,z)]$
 c. $arrive \Rightarrow \lambda x \lambda e \exists y. loc[arrive(e,x,y)]$

(22a)는 ‘push’의 작인역(Agentive)에 해당하는 의미로 동작 사건의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22b)의 ‘build’는 재료 논항에 해당하는 것이 어휘적으로 내재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대상 논항은 필수적이며 그 과정에 영향을 입는 재료 논항은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전형적인 완성 동사의 사건 구조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점증성이 없는 대상 논항을 갖는 'push'의 경우 그 어떤 사건의 완결점을 도입할 만한 논항이 어휘적으로 내재화되거나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만약 대상 논항이 점증적이지 않더라도 완결점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22c)의 'arrive'와 같이 완결점과 관련된 당연 논항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push'의 경우에는 그러한 당연 논항이 없다.

그런데 소비 동사의 경우는 논항이 사격 구절로 실현되는 어휘 폐쇄의 경우가 아니라 논항이 생략되는 경우이다. 이는 화용적 맥락에 의해서 폐쇄가 되는 기능적 폐쇄에 의해 논항이 가려지는 것이다. Pustejovsky(2000a)에 의하면 이러한 맥락에 의한 어휘 가리기의 경우를 만약 어휘적 폐쇄와 동일하게 처리한다면 생략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서로 다른 특질 구조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 이것은 생성 어휘부 이론이 복수의 항목을 나열하는 것을 피하고 한 어휘의 다양한 의미들 사이의 관계를 생성적인 기제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생성 어휘부 이론에서는 어휘적 폐쇄가 아닌 기능적 폐쇄의 방식을 도입한다. 이 때 새로운 분기 유형(branching type)의 변수를 만들어 내는 λ^* 의 연산자를 사용한다. 이 연산자는 다음과 같은 공리를 따른다.¹⁴⁾

- (23) a. 모든 x 가 α 로 대체될 수 있을 경우, $(\lambda^*x\Phi) \alpha = \Phi'$ 이다. 그렇지 않으면,
 b. 모든 x 가 x 의 스킨 상수(the Skolem constant)¹⁵⁾로 대체될 수 있을 경우, $\alpha = \varepsilon$ 이다.

Pustejovsky(2000a: 77)

14) Pustejovsky(2000a: 77)에 제시된 이 공리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 a. $(\lambda^*x\Phi) = \Phi'$, where every occurrence of x is replaced by α , unless,
 b. $\alpha = \varepsilon$, where every occurrence of x is replaced by the Skolem constant of x .

15) 스킨 상수는 한 정형(formula)으로부터 존재 양화사를 삭제했을 때 변수를 대신하는 새로운 상수이다.

이 공리에 따라 Pustejovsky(2000a: 77)에서는 소비 동사 'eat'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형식화하고 있다.

- (24) a. $\lambda^*y\lambda x\lambda e[eat(e, x, y)](mary)$
 b. $\lambda e \exists y[eat(e, mary, y)]$

λ^* -연산자는 변수를 폐쇄하는 역할을 하므로 (24a)를 (24b)로 바꿔 주게 된다.¹⁶⁾ 따라서 (24b)와 같이 대상 논항이 폐쇄된다. 따라서 소비 동사는 맥락에 따라서 대상 논항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마치 동작 동사와 같이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실제로 '무엇인가'를 먹는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맥락에 의해 그 실현이 좌우되는 논항이므로 어떠한 동사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어휘적 폐쇄에 의한 논항 가리기는 활동 동사와 창조 동사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논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어휘적 폐쇄의 특징을 갖는 창조 동사는 그

16) Pustejovsky(2000a: 77)에서는 λ^* -축약(abstraction)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α 유형의 변수 u 와 b 유형의 표현 α 가 주어질 때, $[[\lambda^*u\alpha]]^{Mg}$ 는 이러한 함수이다:

- (i) g' 가 단지 g 와 같고 $g'(u) = k$ 가 아니면 D_α 의 어떠한 대상 k 에 대해서도 $D_\alpha, f(k) = [[\alpha]]^{Mg'}$ 이다. 또는,
 (ii) $f(\epsilon) = [[\exists u\alpha]]^{Mg'}$ 이고, g' 가 단지 g 와 같으나 $g'(u) = k$ 가 아니며, $f(\epsilon) = [[\exists u\alpha]]^{Mg'}$, 엡실론 번역이 주어지면, D_α 의 최소한 하나의 단일 대상 k 가 존재한다.

(Given a variable u of type α , and an expression α of type b , then $[[\lambda^*u\alpha]]^{Mg}$ is that function which either:

- (i) for any object k in $D_\alpha, f(k) = [[\alpha]]^{Mg'}$, where g' is just like g but that $g'(u) = k$, or
 (ii) given an epsilon transition, there is at least a single object k in D_α where $f(\epsilon) = [[\exists u\alpha]]^{Mg'}$, where g' is just like g but that $g'(u) = k$)

어휘 의미 자체에 사건의 결과 상태에 해당하는 논항을 포함하므로 완결된 사건을 함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논항의 특성에 따른 활동 동사, 소비 동사, 창조 동사의 구분은 어느 한 자질만을 고려해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점증성과 계량화, 그리고 논항 폐쇄 등을 모두 다 종합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점증성의 차원에서는 활동 동사와 창조 동사가 구별되지 않고, 계량화의 측면에서는 소비 동사와 창조 동사가 구별되지 않는다. 그런데 어휘적 폐쇄를 고려한다면 각각의 동사들의 구분이 가능하다. 각 동사의 논항의 어휘 의미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25)

	(a) 점증성	(b) 계량화	(c) 어휘적 폐쇄
활동 동사	-	-	-
소비 동사	+	+	-
창조 동사	-	+	+

이 때, 계량화의 자질은 계량화된 명사구의 자질이 동사구의 상적 해석에 영향을 주느냐의 여부를 지시한다. 따라서 활동 동사는 [-계량화] 값을 갖는다.

이와 같이 논항의 자질만으로 이 세 부류의 동사들은 동작 동사와 완성 동사 두 가지 부류로 양분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세 부류의 동사의 어휘 의미 구조를 정확히 기술하고 그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그 어휘상의 특징을 살피기 위해서는 동사의 어휘 의미를 구성하는 중요한 한 부분인 사건 구조의 특성을 살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복합 사건 구조를 하위 사건 간의 대립 구조에 중점을 두고 분석할 것이다.

4. 복합 사건 구조

4.1. 타동성(Transitivity)과 사동(Causation), 그리고 영향 입음성(Affectedness)

일반적으로 사건 구조에 대한 논의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기본 사건을 가정한다(Vendler, 1967; Dowty, 1979). 그것은 상태(state), 과정(process), 그리고 전이(transition)이다. Pustejovsky(1991)는 상태와 과정은 동질적인 사건인 반면, 전이는 이질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전이는 최소한 두 개 이상의 하위 사건으로 구성된 복합 사건이다. 복합 사건의 구조는 이질적인 두 개의 하위 사건으로 이루어진 완성 동사와 달성 동사에 할당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먼저 앞에 제시한 타동의 활동 동사, 소비 동사, 창조 동사들이 모두 복합 사건 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논증하고 사동의 개념과 대립 구조를 근거로 각 동사들의 사건 구조 상의 차이점을 논의해 보기로 하자.

먼저 이 세 부류의 동사들은 비록 논항의 점증성이나 그리고 계량화 가능성, 그리고 논항 폐쇄 등의 경향은 다르나 모두 타동사로서 대상 논항을 직접 목적어로 갖는다. 사건의 참여자로서 대상 논항이 존재하며 따라서 대상 논항은 사건의 진행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타동성(transitivity)이란 원래 행동주의 행위가 목적어가 매개가 되어 전달되는 것이므로 두 개의 하위 사건으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수 있다. 단지 그 하위 사건들 간의 관계나 하위 사건들의 특성의 차이가 전체 사건의 차이를 초래하는 것이다. 또한 이 세 부류의 동사들이 모두 접사에 의한 피동화가 가능하다면 이는 분명히 복합 사건 구조를 갖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피동화는 사건의 결과 부분이 부각되는 상적인 변화를 겪게 되므로 복합 사건 구조를 가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특히 피동화와 관련지어 사동(causation) 구조의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각 사건의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동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는 Comrie(1981) 등이 정의한 바

와 같이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이루는 두 개의 하위 사건이 이루는 관계를 사동이라고 한다. 이는 대부분의 타동사가 사동의 범주에 포함되는 넓은 정의일 수는 있으나 가장 보편적인 사동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사동의 개념을 받아들인다.

사동의 특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에 속하는 것이 영향 입음성(affectedness)이 대상 논항의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대상의 의미역할을 갖는 논항이 모두 영향 입음성의 자질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의 동사들, 즉 활동 동사, 소비 동사, 창조 동사들은 각각의 동사들이 나타내는 사건의 유형에 따라 대상 논항에 반영되는 사건의 흔적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의 영향을 입어 변한 대상 논항의 상태가 그 대상 논항 자체에 반영된다는 것은 원인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사동의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세 부류 동사의 사동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째, ‘밀다’와 같이 이동을 기본 개념으로 하는 활동 동사의 경우에는 논항의 영향 입음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영향 입음성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논항의 상태 변화인데 ‘밀다’의 대상 논항은 상태의 변화라기보다는 이동물(figure)의 위치가 변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관찰한 바와 같이 영향을 입지 않은 대상 논항을 갖는 동사는 완성 동사가 될 수 없다. 대신 ‘밀다’의 경우 타동성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복합 사건구조를 갖는다.

둘째, ‘먹다’의 논항과 같은 대상은 전형적인 점증적인 대상이다. 이 경우에는 먹는 과정이 지속됨에 따라서 대상 논항인 ‘먹을 것’의 양이 줄어든다. 따라서 사건의 변화는 논항의 상태 변화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다. 소비 동사의 직접 목적어인 대상 논항들은 모두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 완결성을 절대적으로 보장하지는 못한다. 즉, Krifka(1992, 1998)가 주장한 바와 같이 점증성은 완결성에 대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이다. (5a)와 같이 계량화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발화 맥락에 의해서만 완결된

사건을 나타낼 수 있는 반면, (5b)와 같이 계량화된 경우에는 완결된 사건을 의미하게 된다.

셋째, ‘짓다’와 같은 창조 동사의 경우에는 대상 논항이 영향을 입지 않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 대상 논항은 결과 상태 그 자체이므로 영향 입음성을 논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3.2절에서 논의하였던 특질 구조의 의미에서도 행동주의 행위가 영향을 주는 재료 논항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짓다’와 같은 창조 동사는 분명한 복합 사건 구조를 갖는다. 그러면 다음 절에서 사건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이와 같이, 이 세 부류의 동사들 가운데 사동성을 갖는 것은 소비 동사가 유일하고 나머지 두 부류의 동사는 사동의 특징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이 세 부류의 동사는 모두 타동성을 갖는 동사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세 부류의 동사는 사동성보다는 공통적으로 타동성을 가지며 이러한 타동성으로 인해 단순 사건이 아닌 두 개 이상의 하위 사건을 갖는 복합 사건 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 사건의 내부 구조: 사건 유지 구조(Event Persistence Structure)와 하위 사건의 중첩

문장이 의미하는 사건을 다루었던 많은 의미론과 논리학 연구에서 사건은 그 문장이 나타내는 속성을 끝내거나 시작하는 데 작용한다고 인정되고 있다. Pustejovsky(2000b: 465, 467)도 사건의 이러한 속성을 다음과 같은 속성 관성 원리(the principle of property inertia)로 제시하였다.¹⁷⁾

17) Pustejovsky(2000b: 465, 467)에 이 두 원리와 관련된 함수 정의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 (1) a. The Principle of Property Inertia: objects and their properties tend to remain as they are unless explicitly affected.
- b. Qualia Selection Thesis: modifiers selectively bind to specific qualia of the head noun.

- (26) a. 속성 관성 원리(The Principle of Property Inertia): 대상과 그 속성은 명시적으로 영향을 입지 않는다면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b. 특질 선택 명제(Qualia Selection Thesis): 수식어는 선택적으로 핵 명사의 특질 특질 구조와 선택적으로 결속한다.
- (27) a. 관문(GATE): 주절 술어인 P 의 영향권에 있는 $\delta \in \Delta$ 인 사건 기술 δ 에 대해서, δ 가 나타내는 속성이 P 에 의해서 시작되거나 끝날 때 그때만 δ 가 P 에 의해서 문이 닫혀 있다.
 b. 지속(PERSIST): δ 가 문이 닫히지 않으면 주절의 술어 P 과 관련된 어 유지한다고 한다.

(26a)의 속성 관성 원리에 의하면 어떤 대상이나 그 속성은 명시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고, (26b)의 특질 선택 명제는 수식어는 핵어 명사의 특정한 특질을 선택적으로 결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단 문장이 의미하는 사건은 그 사건에 참여하는 대상 자체나 그 대상의 속성을 변화시키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기본 가정인 것이다. 그러나 (27a)에서와 같이 관문 함수인 술어가 의미하는 자질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경우에는 사건이 변화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7b)와 같이 사건구조는 지속된다는 것이 바로 사건 구조 지속의 원리이다.

이러한 사건 구조 지속의 원리에서 변화의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Pustejovsky(2000b)는 어떤 변화를 함의하는 사건은 대립 구조를 갖는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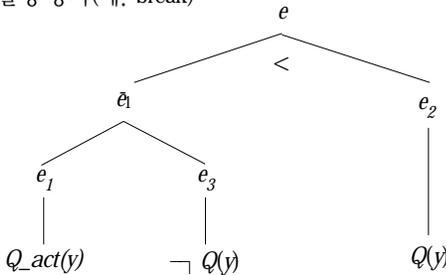
-
- (2) a. GATE: For an event description, $\delta \in \Delta$, in the domain of the matrix predicate P , δ is gated by P only if the property denoted by δ is either initiated or terminated by P .
 b. PERSIST: If δ is not gated, then it is said to persist relative to the matrix predicate P .

- (28) a. The window broke.
- b. [become[broken(the-window)]]
- (29) a. John built a house.
- b. [cause(act(john,y)&become(house(y)))]

(28a)에서 'broke'는 전형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달성 동사이자 기동 동사(inchoative verb)이고, (28b)와 같은 어휘 개념 구조(lexical conceptual structure)를 갖는다. (28a)는 창문이 깨지지 않은 상태를 전제하며 그리고 순간적인 변화가 일어난 후에 그 결과상태가 바로 깨진 창문이 됨을 의미한다. 전형적인 완성 동사라고 하는 (29)의 'built'는 주어가 어떤 다른 요소에 변화를 가하여 어떤 대상이 생겨나는 변화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 두 동사는 모두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이다. Pustejovsky(2000b)의 사건 지속 구조를 도입하면 일반적인 달성 동사와 완성 동사의 사건 구조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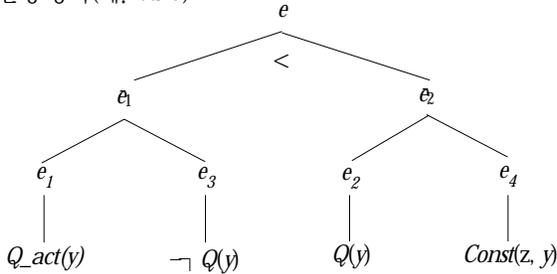
그런데, 실제로 변화하는 양상이 이와 같이 단순하지 않다. 특히 상태의 변화는 모순관계인 $\langle P, \neg P \rangle$ 의 이원적인(binary) 대립 자질로 나타날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정도의 차이를 반영하는 그러한 대립의 자질로 표현되기도 한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점증적인 대상논항의 변화는 이원적인 대립이라기보다는 정도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8) 달성 동사(예. break)



18) Pustejovsky(1995)에서는 동사의 선후 관계가 중첩(◦), 유순(<), 부분 중첩(<◦) 등으로 이루어진다.

(29) 완성 동사(예. bui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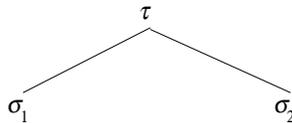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Pustejovsky(2000b: 455-456)에서는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의 사건 구조에 대해 이원 대립(binary opposition)과 극 대립(polar opposition)의 구조를 제시하였다. 각각의 대립 관계는 다음과 같은 자질을 갖는다.

(30) 이원 자질(Binary Property)¹⁹⁾

- a. τ 가 $\sigma_1, \sigma_2 \subseteq \tau$, and $\neg \exists \sigma[\sigma \neq \sigma_1 \vee \sigma_2]$ 인 유배열(sortal array)의 국지 최소상계(local top) 유형인 경우에 $\langle \sigma_1, \sigma_2, U, \subseteq \rangle$ 는 이원 술어 P 를 실현시킨다.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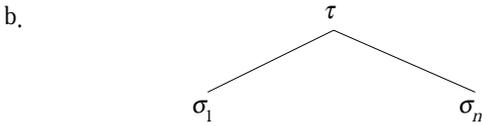
- c. $\langle P, \neg P \rangle, \langle P, Q \rangle, \langle \neg Q, Q \rangle$

19) Pustejovsky(2000b: 455)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Binary Property: $\langle \alpha_1, \alpha_2, \tau, U, \subseteq \rangle$ realizes a binary predicate P , where τ is a local top type for this sortal array, such that $\sigma_1, \sigma_2 \subseteq \tau$, and $\neg \exists \sigma[\sigma \neq \sigma_1 \vee \sigma \neq \sigma_2]$. That is, σ_1 and σ_2 exhaustively partition τ .

(31) 극 자질(Polar Property)²⁰⁾

- a. Σ 가 유형들의 유배열이고 τ 가 $\sigma_i \subseteq \tau$ 인 σ_i 에 대해서 $\sigma_1, \dots, \sigma_n \in \Sigma$ 이고 $\sigma_i < \sigma_{i+1}$ 이며, 서로 구별되는 종류의 σ_1 와 σ_n 가 두 개의 극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유배열(sortal array)의 국지 최소상계(local top) 유형인 경우에 $\langle \Sigma, \tau, \cup, <, \subseteq \rangle$ 는 극 술어 P 를 실현시킨다.



c. $d_1 >_{\text{pos}\phi} d_2 \Leftrightarrow d_2 >_{\text{neg}\phi} d_1$

이와 같은 대립 자질들을 근거로 활동 동사, 소비 동사, 그리고 동작 동사의 대립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활동 동사의 경우에는 대상의 상태가 전혀 변화가 없다. 앞의 사동의 개념에 근거하여 살펴보다라도 활동 동사의 대상은 전혀 어떠한 영향도 입지 않고 변화가 전무한 상태이다. ‘수레를 밀었다’는 것은 수레의 본질적인 상태의 변화가 아닌 단지 수레의 위치만 변한 것이다. 따라서 이 구조에는 어떠한 대립의 구조도 나타나지 않는다. 더욱이 활동 동사의 논항은 점증적이지 않고 계량화되지 않으며 어휘 폐쇄의 속성도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활동 동사는 변화하지 않는 사건을 내포하는 지속 함수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달리, 소비 동사와 창조 동사의 경우에는 논항인 대상의 상태에 변화가 나타난다. 즉, 두 동사 모두 사건의 변화를 나타내는 관문 함수로 작용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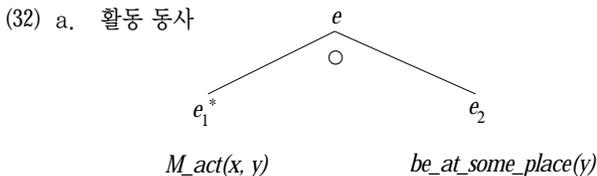
20) Pustejovsky(2000b: 455)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Polar Property: $\langle \Sigma, \tau, \cup, < \subseteq \rangle$ realizes a polar predicate P , where Σ is a sortal array of types, τ is a local top of this sortal array, such that $\sigma_1, \dots, \sigma_n \in \Sigma$, for $\sigma_i \subseteq \tau$, and $\sigma_i < \sigma_{i+1}$, and there are two poles, σ_1 , and σ_n , that are distinguished so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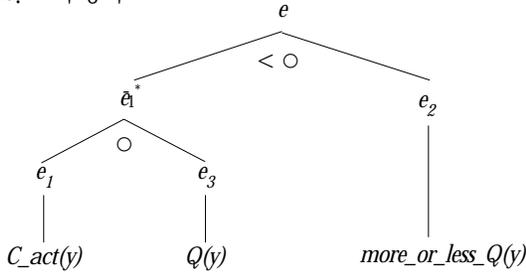
것이다. 단, 이 두 부류의 동사들은 각각 그 변화의 양상이 다르다는 점이 중요하다. 소비 동사의 논항은 점증성을 갖는 한편 계량화도 가능하다. 즉 사건의 진행이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이루어지고 그 변화가 모순 관계의 대립이 아닌 대상 자체가 제공하는 척도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창조 동사의 논항은 점증적이지 않으며, 동사가 나타내는 결과 상태에서 나타나는 대상이 존재 여부로 변화의 양상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소비 동사의 대립 구조는 ‘극 자질’에 근거하는 것이며 창조 동사의 대립 구조는 ‘이원 자질’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2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활동 동사, 소비 동사, 창조 동사는 미완료 역설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김윤신(2004)에서는 이와 같은 미완료 역설을 근거로 하위 사건의 관계를 추론하여 달성 동사의 유형을 나누어 보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미완료 역설이 맥락에 의존하는 경우는 두 개의 하위 사건들이 부분적으로 중첩하는 사건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것은 사건 구조상 동질적인 하나의 사건을 이루는 동작 동사와 달리 부분적으로 성립함을 의미하며 이는 일부의 사건이 겹치는 불완전한 동질성을 갖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활동 동사는 두 개의 하위 사건이 완전히 동일하게 겹치는 완전 중첩 사건이고, 소비 동사는 두 개의 하위 사건이 부분 중첩되는 사건이며 동작 동사는 전형적인 완성 동사의 특징을 보이며 전혀 중첩되지 않는 순서가 지워진 복합 사건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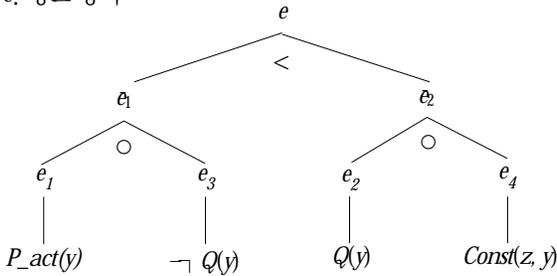
이와 같은 사건 지속의 원리와 대립 구조, 그리고 미완료 역설 상의 증거 등에 근거하여 활동 동사, 소비 동사, 그리고 창조 동사의 사건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b. 소비 동사



c. 창조 동사



5. 결론

지금까지 동사의 상적 부류 설정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는 타 동사의 세 가지 부류(활동 동사, 소비 동사, 창조 동사)에 대하여 기존의 논의와 생성 어휘부 이론에서 제시된 사건구조에 기반하여 살펴보았다. 이 부류의 동사들은 동작 동사와 완성 동사라는 동사의 상적 부류의 논의에서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 논문의 초점을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에 맞추었다. 실제로 동작 동사와 완성 동사의 구분은 흔히 동사의 차원에서 보다는 오히려 동사구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고 또 그것이 합당하게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의견들은 결합하는 대상

논항의 특성에 따라 동사구의 상적 해석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는 동사들이 논항의 자질과 사건 구조에 있어서 서로 유사한 부분과 다른 부분이 공존하고 동작 동사나 완성 동사로 이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사건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고 그 내부 구조와 논항의 결합 관계를 통하여 전체 동사구의 상적인 해석을 추론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동사의 어휘상과 문장의 상적 해석을 다루는 것의 문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어휘로서 동사의 사건 구조는 바로 어휘상의 문제이며 그것이 논항이나 부사어 등과의 결합 관계를 통해 문장이나 구절의 차원에서 실현될 때 비로소 관점상과 같은 상적 해석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이 충분한 논의는 아니지만 한국어 동사의 어휘상에 대한 또 다른 시도이며 생성 어휘부 이론에 입각한 한국어 어휘상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의 시작이라는 데 의의를 두고 앞으로 더 많은 언어학적 증거와 논리를 찾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윤신(2001a), 『과생동사의 어휘의미구조 - 사동화와 피동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윤신(2001b), 『한국어 동사의 어휘의미구조와 피동화의 제약』, 『언어학』 제 30호, 89-112.
- 김윤신(2002), 『한국어 사동화와 어휘의미구조의 변화: 생성어휘부(Generative Lexicon) 이론에 의한 접근』, 『언어와 정보』 6-2, 57-82.
- 김윤신(2004), 『한국어 동사의 사건구조와 사건함수 ‘-고 있다’의 기능』, 『형태론』 6-1.
- 김윤신, 이정민, 강범모, 남승호(2000), 『한국어 피동동사의 의미구조와 논항 실현』, 『인지과학』 11-1, 25-32.
- 이정민, 김영화, 강범모, 남승호, 이하규(2000), 『의미구조의 표상과 실현』, 소

화출판사.

- Comrie, Bernard (1981),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Cambridge & Oxford: Blackwell.
- Dowty, David. R. (1979),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Dordrecht: Reidel.
- Dowty, David. R. (1991), Thematic proto-roles and argument selection, *Language* 67, 546-619.
- Kim, Yoon-shin & Chungmin Lee (2003), The Lexico-Semantic Structure of Korean Inchoative Verbs: with reference to '-e-ci-ta' class, *The Proceedings of GL 2003 Second International Workshop on Generative Approaches to the Lexicon*.
- Krifka, Manfred (1992), Thematic relations as links between nominal reference and temporal constitution, in Sag, Ivan and Anna Sabolsci (eds.), *Lexical Matters*, CSLI.
- Krifka, Manfred (1998), The origins of telicity, in Susan Rothstein (eds.), *Events and Grammar*,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Landman, Fred (1992), The progressive, *Natural Language Semantics* 1, 1-32.
- Lee, Chungmin (1989), (In)definites, Case Markers, Classifiers and Quantifiers in Korean, in Kuno, Susumu et als (eds.) (1989),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III*, Department of Linguistics, Harvard University.
- Lee, Chungmin, Seunggho Nam and Beom-mo Kang (1998), Lexical Semantic Structure for Predicates in Korean, in Boas, J. and Paul. Buitelaar (eds.), *Proceedings of ESSLLI-98 (Tenth European Summer School in Logic, Language and Information) Workshop: Lexical Semantics in Context-Corpus, Inference and Discourse*, 1-15.
- Pustejovsky, James (1991), The syntax of event structure, in Levin, Beth and Steven Pinker (eds.), *Lexical & Conceptual Semantics*, Cambridge & Oxford: Blackwell.

- Pustejovsky, James (1995), *The Generative Lexicon*, Cambridge, MA: The MIT Press.
- Pustejovsky, James. (2000a), Lexical Shadowing and Argument Closure, in Ravin, Yael and Claudia Leacock (eds.), *Polysemy: Theoretical and Computational Approaches*, Oxford University Press.
- Pustejovsky, James (2000b), Events and the Semantics of Opposition, in Tenny, Carol and James Pustejovsky (eds.), *Events as Grammatical Objects: The converging perspectives of lexical semantics and syntax*, CSLI.
- Rothstein, Susan (2004), *Structuring Events: A Study in the Semantics of Lexical Aspect*, Cambridge & Oxford: Blackwell.
- Smith, Calota (1999), ACTIVITIES: STATES OR EVENTS?, *Linguistics and Philosophy* 22, 479-508.
- Talmy, Leonard (1985), Force dynamics in language and thought, *Papers from the Twenty-First Regional Meeting*, Chicago Linguistic Societ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 Tenny, Carol L. (1994), *Aspectual Roles and the Syntax-Semantics Interface*,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Vendler, Zeno (1967), *Linguistics and Philosoph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ABSTRACT

A Study on the Event Structures of Motion/Consumption/Creation Verbs: with Reference to the Generative Lexicon Theory

Yoon-shin Kim

Since Vendler (1967), the verbal aspect has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Lexical Semantics. In particular, the differentiation between activity verbs and accomplishment ones is the very tough problem for many lexical semanticists. Motion verbs like 'push' (Eng.) or 'mil-ta' (Kor.) are obvious activities and creation verbs like 'build' (Eng.) or 'cis-ta' (Kor.) behave as clear accomplishment, while consumption verbs like 'eat' (Eng.) or 'mek-ta' (Kor.) express activities or accomplishment.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suggest the Event Structure of motion/consumption/creation verbs based on the Generative Lexicon Theory by Pustejovsky (1995, 2000a, 2000b).

As for the argument structure, three kinds of verbs are different from one another in terms of incrementality, quantization, and lexical closure as follows:

	incrementality	quantization	lexical closure
motion verb	-	-	-
consumption verbs	+	+	-
creation verbs	-	+	+

This paper also analyzes the internal event structures of these three type verbs considering the causation and the event persistent structure with the opposition structure. Motion verbs do not belong to the causation because their themes are not affected. They, however, have the transitivity and their event structures are complex. Consumption verbs also denote complex events and the causation because their themes are incremental and affected. On the other hand, creation verbs also express the complex events, but their themes are not affected. So the complexity of the event is determined by means of the transitivity.

But, the events related to these three types of verbs imply the change and the more minute examination is required. Thus, I investigate their internal event structures using the event persistence structure (EPS) and the event overlapping. Motion verbs belongs to the persistent function, while consumption verbs and creation verbs mean the gate function. The latter ones are different in terms of the changing aspect. Consumption verbs means the change related to the polar property, but creation verbs express the change with the binary property. In addition, motion verbs have the overlapped complex events, and consumption verbs express the partially overlapped ones. On the contrary, the event structures of creation verbs are strictly ordered, and creation verbs are the typical accomplishment verbs.

